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 운동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캠프 (명실동활명IC 인근순서로 순회) 개최
- 무척시 9월 이후 특별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neasy.co.kr 0801 320-7700



금메달 향한 정조준

12일 순천 팔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9회 전국 체육대회 양궁 남자 고등부 50m 경기에서 16개 시·도 대표 선수들이 힘차게 시위를 당기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체고 女 체조 5연패

전남 박주영 마라톤 우승



광주체고 여고 체조가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단체전 5연패의 금자탑을 쌓으며 광주의 초반레이스에 힘을 실었다. 전남은 육상의 꽃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순항했다.

광주체고는 12일 영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3일째 체조 여고부 단체전에 강은미·김지현·김해련·박은경·전다비·정소희·홍보미가 출전해 금빛연기를 펼쳐며 지난 2004년부터 쌓아온 금메달 전통을 이어 5연패를 달성했다. 또 지난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체조 4관왕 박은경은 이날 개인종합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오르며 올해 대회 5관왕을 향한 탄탄한 발걸음을 뒀다.

김두산(조선대)은 태권도 남대부 플라이급에서 금빛발차기를 성공시켰고, 고영준(광주체고)은 유도 남고부 60kg 이하에서 금빛을 메쳤다. 박태승(광주체고)도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3kg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미정(서구청)은 펜싱 여자일반 에베에서 금빛 찌르기를 성공시켰고, 박태신(송의고)은 보디빌딩 남고부 75kg에서 금빛 연기를 펼쳐며 광주에 금을 보냈다.

추진리(광주체고)와 최아라(광주체고)는 역도 여고부 53kg급에서 각각 용상과 합계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구교동(서구청)은 펜싱 남자일반 에베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4연패를 바라봤던 장용호(태극권)는 우수 남자일반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러 연패행진을 마감했다.

전남은 박주영(환진)이 이날 맘마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마라톤에서 2시간23분08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송찬희(전남체고)도 여고부 장대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부창순(헬스카페)은 보디빌딩 남자일반부 웰터급에서 금빛 연기를 펼쳤다. 한경희(순천여고)와 이현주(순천대학교)는 각각 양궁 여고부 50m와 여대부 30m에서 금빛과녁을 명중시켰다. 홍현지·나아름·김진희(전남미용고)는 사이클 여고부 단체스프린터에서 금빛질주를 펼쳤고, 나규호(전남체육고)·김용민(한국가스공사)는 각각 태권도 남고부 패더급과 남일반 밴텀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김주영(조선대)도 태권도 남대 밴텀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최일성(함평골프고)은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97kg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남의 순항에 힘을 보탤다.

/여수=최재호·이종형·박양규 기자 lion@kwangju.co.kr



12일 열린 육상 남자 일반부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전남 박주영이 두 손을 번쩍이며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전남대회(회장 김규홍)는 박주영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화제 박스

재외동포 호주 선수단 체육 꿈나무에 장학금

동신고 이광삼군에게 연수 지원도

전국체전에 참가한 재 호주선수단(재 호주대한체육회)이 유망 체육꿈나무에게 장학금을 기탁하는 진한 동포애를 나누고 있다. 재 호주선수단은 13일 오후 6시 여수시 디오선리조트에서 정구 선수인 광주 동신고등학교 이광삼(1년)군에게 '코알라장학금'을 전달한다.

지난해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시체육회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재 호주 대한체육회와 운영중인 코알라 장학회는 지난해 이군에게 200만원과 성인(고교졸업)이 될 때까지 스포츠 및 영어연수 지원 등을 약속했던 것을 올해도 이행하고 있다.

재 호주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코알라 장학회는 지난 2005년 전국체전부터 고교의 체육 꿈나무를 선정,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재 호주대한체육회는 12일 저녁 여수 디오선리조트에서 나이름(미용고)선수에게 '제4회 코알라장학금'을 전달하고 스포츠 및 영어연수 지원을 약속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여자 프로농구에서 육상선수로 탈바꿈

일반 400m 출전 대구 장예은



“경험부족으로 예선탈락 했지만 좋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1일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여자일반부 400m에 출전해 7명의 선수가

운데 외국인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대구 대표로 출전한 장예은(21·시진).

미국인 아버지를 둔 장예은은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에서 1년 6개월 선수생활을 하다 올해 5월 육상에 입문한 늦깎이 스포츠인이다.

정확히 5개월여 연습을 하고 두번째 스타트 라인에 선 왕초보인 셈.

장예은은 농구선수에서 육상선수로 진로를 바꾼 데는 지난 1990~1994년까지 육상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이준(57)씨의 영향 때문이다.

1m75cm, 62kg로 전형적인 흑인 육상선수의 신체를 지닌 그녀를 눈여겨 본 이준씨는 오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과 2010년 아시안게임 200m와 400m 메달을 따낼 기대주로 육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김포시청 소속선수로 뛰게 될 장예은은 “이번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 꼭 한국신기록을 작성하겠다”고 활짝 웃었다.

여수정보과학고 유도 여고부 종합 1위 견인



전남 여고부 유도가 지난해에 이어 여고부 종합1위를 달성하며 최강의 전력을 자랑했다.

지난 11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여고부 유도경기에서 전남은 금3, 동3개를 따내며 여고부 종합1위를 달성했다. 이같은 성적은 지난해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에서 4체급 금메달의 이적표를 세운 뒤 2년연속 종합1위를 달성해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간 것이다.

특히 주수현(70kg이하·3년·금)·최희화(78kg이하·1년·금)·강술지(무제한급·2년·금·동)와 한기쁨(48kg 이하·3년·동)등 이번 대회 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딴 선수들이 모두 여수정보과학고 선수들이어서 유도

11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여고부 유도경기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낸 여수정보과학고 선수들. 왼쪽부터 최희화, 강술지, 주수현, 한기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2000년 유도부를 창단한 여수정보과학고는 지난해 추계유도 단체전 우승 이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올 회장기와 용인대기유도대회 단체전을 휩쓸며 일찌감치 전국체전 금메달을 예약했다. 주수현과 한기쁨은 오는 10월 청소년세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명암

박태환 50m 우승...이용대 결승행 좌절

(수영 자유형)

(배드민턴 남복)



박태환 선수가 12일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자유형 50m 결승에 출전, 1위를 차지한 뒤 시상식장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링크’ 이용대(21·삼성전기)가 제89회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교동청양인 조건우와 짝을 이뤄 전남대표로 출전한 이용대는 12일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벌어진 배드민턴 남자복식 준결승에서 충남대표인 김용현-김상수(이상 당진군청) 조에 0-2(14-21 13-21)로 패하고 말았다.

이용대는 14일 열리는 단체전에 전남대표로 다시 출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이날 오후 6시부터 전남체육공원 이벤트 광장 내 대한체육회 홍보관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는 1천 명이 넘는 여수 시민들이 몰려 아쉬운 자리를 방불케 했다.

진중오 50m 권총 대회新 ‘금’

이용대 팬 사인회...인기 실감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을 땀으나 한국 신기록 작성에는 실패했다.

박태환은 이날 오후 목포 실내수영장에서 펼쳐진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2초73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두드렸다.

이번 대회에서 5개 종목(개인종목 2개, 계영 종목 3개)에 도전하는 박태환은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목표로 삼았던 한국 기록 경신은 하지 못했다.

박태환의 이날 기록은 6년 전인 2002년 김민석(부산중구청)이 낸 22초55의 한국 기록에 0.18초 모자랐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강원대표 진중오(29·KT)는 같은날 나주 전라남도종합사격장에서 벌어진 사격 남자일반부 50m권총에서 본선과 결선 합계 667.6점을 쏴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진중오가 기록한 667.6점은 베이징 올림픽 우승 당시 올린 660.4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다.

진중오는 13일 공기권총 개인과 단체전에 출전한다



12일 배드민턴 남자복식 준결승에서 조건우와 짝을 이뤄 전남대표로 출전한 이용대가 공격이 실패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